

# 전북 디지털 자산특구 구축 '헤드포럼' 역할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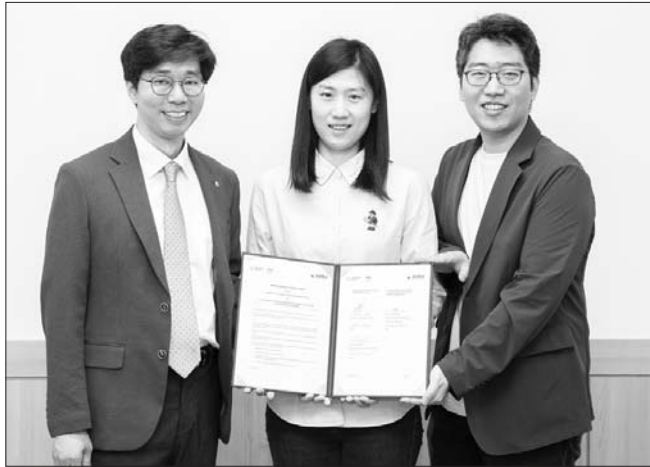
전북대, 스위스 취리히대학  
블록체인센터와 협약 체결  
전북 디지털 자산 기반  
국제금융도시 협력 약속

전북대학교 부설 블록체인응용연구소(소장 김순태)와 스위스 취리히대학 블록체인 센터(소장 Claudio J. Tessone)가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자산 특구 구축을 위한 헤드포럼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양 대학 연구소는 23일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 협력을 위해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연구소는 블록체인 분야의 연구 및 개발, 교수진과 직원, 연구원 등에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 교류에 있어 공동 및 복수학위제, 일반 및 교환·방문 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학술자료와 출판물 등을 교환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학술회의 조직 등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적·인적 자원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대학교 부설 블록체인응용연구소와 스위스 취리히대학 블록체인 센터가 지난 23일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 협력을 위해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날 두 연구소는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자산 특구 구축을 위해 스위스 Zug(Zug)시의 국제적인 디지털 자산 중심지 구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북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 금융도시로 발전 방안 모색과 협력을

약속했다. 김순태 소장은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블록체인 센터와 전북대학교가 블록체인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분야 발전과 국제적 디지털 자산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전주화정초등학교에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등굣길 캠페인'을 펼쳤다.

## "학교 폭력 없는 학교 함께 만들어요"

전북교육청, 전주화정초서 학교문화책임규약 실천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전주화정초등학교에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등굣길 캠페인'을 펼쳤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 내용을 이해하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공동체간 협력적 소통을 통해 학교 전체의 문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약속문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주화정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과 전주교육지원청, 전주덕진경찰서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실천 약속 카드를 작성하고 책임규약 실천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방과후 교육 활성화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학교폭력예방지원학교 458개교, 학교폭력예방중점학교 52개교를 지정해 어울림 프로그램, 언어문화 개선, 회복적 생활교육, 책임교사 수업경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등굣길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확산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RIS 공유대학 지역별 우수성과 공유

2024 RIS 교육성과포럼 개최  
전북지역혁신플랫폼 'JST 공유대학' 교육 성과 공유  
지속가능 발전 방안 모색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9개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시행되고 있는 RIS 공유대학의 지역별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3~24일 부산 시그니얼호텔에서 9개 지역혁신 플랫폼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공유대학'이라는 주제로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파용주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의 '지속가능한 공유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고등교육 길 보듬'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플랫폼별 우수 교육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최진하 부본부장은 'JST 공



지난 23~24일 부산 시그니얼호텔에서 2024년 RIS 교육성과 포럼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유대학의 융합전공 교육과정 체계 구축과 핵심분야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미래수송기기(중심대학 전북대)와 에너지신산업(중심대학 군산대), 농생명·바이오(중심대학 원광대) 등 3개 전공을 설치해 분야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경북대 평생교육원 정중철 원장(前 교육부 차관)을 좌장으로 민혜리 서울대 연구교수, 한국직업능력연

구원 장관님 부연구위원 등의 토론이 펼쳐졌다.

전북지역혁신플랫폼 이교우 RIS대학 교육혁신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2025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환을 앞두고 전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취업연계형 융합전공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 정주 혁신인재를 양성해 전북지역 발전과 대학의 역할 강화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 도모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통합공노조와 지방공무원 노사 공동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3~24일 전북통합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익철)과 함께 '2024년 지방공무원 노사 공동연수 및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노동조합 참여·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공동 청렴 활동을 통해 전북교육 청렴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 노사공동 연수와 연계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이루어졌다.

연수는 갈등·협상관리,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 타 기관 노사문화 우수사례 공유 등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과 윤기나눔 캠페인인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24일에는 양양 해파랑길에서 플



로깅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교육청 노사 간 청렴을 다짐하는 '함께 뿌린 씨앗 꽃 피우는 전북교육'을 홍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동반자인 노동조합과 적극 협력할 것이며,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조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거점국립대 명예교수연합회

오늘부터 2일간 전북대서 총회

국가거점국립대학 명예교수 연합회 2024년도 총회가 오는 27~28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명예교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9개 거점국립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명예교수회에서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학 명예교수 연합회는 각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6,000여 명의 명예교수들이 노후 연구와 봉사활동 등을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분부 보직자들과 명예교수회 임원 및 회장단이 참석해 명예교수들의 사업, 복지, 총장 선거 시대의원 선정, 회차 발간 등 사업을 토의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단기 해외 교육봉사 운영대학 선정

전주대,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서  
겨울방학 4주동안 교육봉사활동 진행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화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과 공개개발원조(ODA) 국가 교육 원조를 위해 단기 해외 교육봉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작년 이어 전국 8개 선정 대학 중 하나다.

이번 교육봉사 선정으로 전주대 해외봉사단은 겨울방학 4주간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와 협업해 라오스 현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봉사센터 황인수 센터장은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라오스 봉사활동에서도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교육 리더로 성장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전공맞춤 멘토링

전주기전대학은 지난 24일 수빈티아트센터에서 허브조경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학생-졸업생 간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정보 교류, 학생들이 가져야 할 직무 자세와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등 실습을 통한 현장 실무형 중심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로 기획했다.

이번 멘토링은 전통 다식·다례의 종류와 제조방법 그리고 차(茶) 문화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 허브조경과 30여 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허브조경과 학생들은 '차(茶) 문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후 전통 다식과 전통 다례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 환영"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2024년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 대한 "환영"의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사노조는 2023년부터 회계업무인 에듀페이에서 교사를 배제하고,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넓혀 현장교사들이 업무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으며, 특히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디지털 튜터·배움터 지킴이 비서관 각종 채용업무 등이 학교 업무지원센터 업무범위에 명확히 포함될 것을 높이 평가했다.

교원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한 학교 업무지원센터는 교원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이 센터장을 맡아야 효율적인 교사 업무경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전산행정직과 교사를 겸임하며 분신기기에 대한 번성까지 해아하는 정보담당교사들의 어려움을 수차례 공론화했다. 3차례 협의회 끝에 '교1 디지털 튜터 배치'가 반영돼 앞으로 모든 학교가 디지털 수업과 정보업무를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故 무너져오 교사 순직 이후 전북교사노조가 주장했던 5등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안 역시 반영됐고, '교무학사 전담교사 정원 외 배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교사 업무 경감 대책에서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유아교육 분야라고 지적했다.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소규모로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행정업무량이 막대하다며, 돌봄, 유아학비, 통학버스, 시설업무 등에 관련된 혁신적인 업무경감을 통해 교사들이 유아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 국립군산대 진로·진학박람회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4일 캠퍼스 일대에서 2024년 KSNU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교육 현장 수요에 발맞춘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선 학교의 교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고, 군산여고를 비롯해 군산, 전주, 완주, 김제, 서천 등 지역 고등학생과 교사 2,500여명이 참여했다.

KSNU 진로·진학 박람회는 행사장을 찾은 고등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의 부스에 직접 방문해 평소 궁금했던 전공의 학습 내용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